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물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
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
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
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마음의 파도 없으면 현상계 잔잔”

17면에서 계속

되던 그야말로 진짜 구업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왔으니
종교를 떠나서 이 공부는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가 어디
있으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없다면 모두가 무효가 돼 버려요.
내가 있으므로 세상도 있는 거니까 주처
는 바로 여러분 각자 마음 속에 있는 겁
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는 생명의 근본이 있습니다. 뿌리없이 썩
어 자랄 수 없듯이 썩은 자기 뿌리를 믿
어야만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자기 근본
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고 기도하는 건
도깨비짓과 같은 겁니다.

들여놓아 싸우고 시끄럽게 만들고 병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차별을
두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건 다 그냥 주
인공에다가 맡겨줘야 이 소립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에다 다 맡기는 거죠. 진짜 자기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익되게 할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고, 자기만이 자기를 고
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의 선
장이라는 눈을 진짜로 볼려고 노력하
요. 당신 몸뚱이를 당신이라고 붙들고 늘어
지지 말구요. 그래야 통신이 됩니다.

스님께서 호두알 건네줘
문 이년 전 어느날 스님께서 저에게
호두 한 알을 건네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은 좋게쓰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게 쓰면 나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좋게 돌리세요”



그림 · 최주현

출가가 망설여 집니다

문 저는 5년 전에 몸이 아픈 것을
계기로 스님을 처음 뵈게 됐는데
그때 스님께서도 전화를 비유로 법문
을 해 주셨습니다. “내 집에 먼저 전화를
놓아야 걸려오는 전화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과 관하는 걸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
척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교와는 계속 인연이 깊어 어느 큰 사
찰에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버리지 못한
인연이 남아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서 스
님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와 닿으면서
결혼을 해야 할지 출가를 해야 할지 매
우 망설여집니다. 몸도 아프니 한편으
로는 출가해서 다시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스님, 가르침 주십시
요.

기쁘고 환희심에 차서 한시도 그 호두를
제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나 기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기를 한
2년, 그 호두도 제 손에서 떨어져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문득 진실하
지 못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는 곧장 그 호두를 깨어서 속을 맛있게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금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
웬걸 거기에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뒤라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스님은 어디에든 계시는구나. 또 무
엇이든 하고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풀 한
포기 바람 한 점에도 평등공법으로 어루
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왔
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문 내 모습으로 보았어도 하찮죠? 나
로 보일 때도 틀이 아닌 까닭에 모
습만 나로 보였지 실체는 당신이예요. 당
신으로 보았든 나로 보았든 그건 당신한
테로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의 가르침의 과정이니 스님은 어
디에도 다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옳지
만 배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참나에 ‘부
가 되고 참나에 ‘자’가 되는 도리가 있
거든요.
한 생각 하기에 따라서 말이예요. 그리
고는 부와 자가 하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도리만 알면 자유자재권 얻은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어느 거 하나 내 아님

항상 애기하지만 마음공부는 출
가를 하든 안하든 그걸 떠나서 인
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공부에
요. 그리고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출가는 마음으로 하는 출가죠. 그리고
사람이 말이예요. 미우나 고우나 한철
사는 인생을 짧은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나 산 영
혼이나 똑같아요. 50%가 산 영혼이라면
50%가 죽은 영혼이죠. 보이지 않는 영혼
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평등해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실
로 이렇게 수억갑을 살아가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 아픈 것도 말입니다. 사람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만이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가 관해주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가 갖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책을 보더라도 ‘아 정말 그러면 되겠
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믿고 진
실히 관하면 필연에 그해 그렇게 어렵습
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뿌리의
차원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뿌리를
믿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 속에 갈등이 나오는 것도
결국 당신 영혼의 근본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산다고 하니가 50%밖에 모르는 거죠.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은 어떻게 살았
느냐에 따라서 모여진 인연들입니다. 거
기에서 갈등도 나오고 화도 나게 하고
그걸 잘못 행동도 하고 잘 행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게 나오더라도 의식
에서 그러는 거니 거기에서 속지 말고
모든 걸 주인공 자리에 몰록 내려 왔습
니다. 내 몸 속에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의식이 살고 있는데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도와주지만 나쁜 인연은 사사건건 방해
를 합니다. 우리 현재 사는 모습과 똑같
죠. 나쁜 인연들을 예로 들면 뇌를 먹은
문지기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망쳐놓
는 것과 같아요. 즉 말하자면 간장 공장
이나 위 공장이나 방광 공장이나 척수
공장 콩팥 공장 이런 부서마다 문지기로
있는 인연이 있어 뇌를 먹으면 광배를

이 없다 하는 도리도 그 까닭이죠. 하려
든 호두도 깨먹은 건 잘 깨먹었어요. 언
제고 모습이라는 건 없었지만 마려이죠.
그리고 먹어치우기 마련이예요. 부처님께
서도 닦치는 대로 먹어치우라고 그러셨
단 말이예요. 그게 무얼 먹는 걸 말하는
지 아시죠? 부처님도 대인 게우쳐 주
니까 부처님을 한마음에다 흡수시켜라
이 소리거든요. 먹어치우라는 게 잘 잡아
먹으라는 게 아니라 ‘흡수시켜라, 둘 아
니게 흡수시켜라, 모든 거 약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내 앞에 닦힌 거면 다 흡수
시켜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 번 생
각 못하면 못 한 송이 든 거와 같이 이
심전심으로 전부 통한다 이겁니다. 부처
님께서는 뼈 한 무더기를 놓고 사생이
다 부모 자식간임을 가르치기도 하셨죠.

은산철벽 넘고 싶은데...

문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다보니
때로는 정말 은산철벽이 넘는 것이
있더군요. 그걸 어떻게 보았다고 승과와 정
을 다 사용해 보았습니까? 여의치 않습
니다. 스님께 가르침 청합니다. 기필코
뚫고 넘어설 것입니다.

문 하하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사
실은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철퇴도
없고 벽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은산철벽

도 뚫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내면 미국에도 통하고 은하수에
도 통하고 저 우주에도 통하는 걸요. 빛
보다 빠르죠. 죽고 사는 문제를 탁 놔버
리고 겁내지 말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
까, 부인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할
지 마시고 다 맡겨 놓으세요. 오히려 다
놓게 되면 심부름꾼이 생겨요.

방역살생 · 전쟁에 대해...

문 스님께 살생에 대해서 여쭙고 싶
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국가정책
상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곤충과 벌레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살

그러나 넓게 본다면 굶어 죽는 나라나,
물론 죽고 불로 죽는 그런 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라고 말하지만 죽어도 죽는게 아니거든
요. 진화가 돼서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한편 생각하면 오래오래 고생하며 죽는
것보다 단 한 칼에 고통없이 죽는다면
그것도 방법이죠.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현상에 조
금 더 살고 덜 살 뿐이지 다 합쳐서 보
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누
구를 죽였든가 살생했다든가 하는 생
각을 남기지 마세요. 살기 위해서 죽는

의사도 내 주인공 일까요

문 얼마전에 심한 감기와 함께 눈병
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
보라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계속 관
하고만 있었더니 아픈 것이 한달이나 갔
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래, 병원의 의사
도 바로 내 주인공이 아닐까?’ 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뭐가 들어갔는데 그동안 더 깊이
박혀 굉장한 고생을 하여 여러 개를 뽑
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무
의 세계로 통신하느라고 열심히 관했지
만 그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은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어 줍니다” 의사나 약도 나의 보이지 않는 주인공의 ‘손’

것이고 그것도 자연의 이치니까요.
스키장서 이상한 일 체험
문 저는 작년에 강원도에 스키를 타
러 갔었습니다. 처음 주차장에 세워
놓고 잠깐 스키장에 다녀왔더니 제 차가
본래 물리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
었습니다. 순간 ‘아, 이걸 신에 올라가지
말라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회가 자주 없는지라 그냥 올라갔습
니다. 그때 아이들은 눈썰매장에 있었는
데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저는
차에 놓고 온 줄 알고 주차장엔 갔습니
다. 그런데 새 장갑이 놓여있는지라 이상
하게 생각하면서도 당장 필요한 터라
‘고맙다’ 그러구선 들고와서 아이에게
주었더니 마침 손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
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잃어버린 줄 알
았던 장갑을 어디선가 찾았거든요. 하도
이상해서 ‘주인공 뭐가 뭔지 잘 모르겠
다. 내가 가르쳐다오.’ 하고 그냥 집로
왔습니다.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차에
헤드라이트가 켜진 것 하고요, 물건이 놓
여져 있던 것이 이상한데도,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좀더 넓고 좋도록 해보세요.

헤드라이트가 켜졌으면 ‘아, 이걸 길을
밝혀주는 거니 잘 갔다오라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
기에 달렸는데 왜 하필 가지 말라는 쪽
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좋도록 돌려 놓으세요. 그리고 잠
각 생긴 것도 그래요. ‘내가 원하니까 내
졸병들이 갖다 놓은 거지.’ 라고 생각하
면 이상할 게 없죠.
언젠가 내가 얘기했죠. 여기 처음 오던
해에 김장을 해야할텐데 그릇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릇이 없으니 배추를 잘릴
수도 없었는데 이른날 아침에 나가니까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어요. 사람
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없으면 배추를 잘릴 수
없었던 거지말이 아니죠. 그것마저도 함
이 없이 해라 이겁니다.
형제지간이나 친구지간에 의의 상했
을 때 서로 좋은 말을 해줘야 화합이 될텐
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골대로
서로 욕한 걸 그대로 전해줄 수 있습니

“사람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끌고다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만이 자기 이끌 수 있어요”

처음 당시에도 신통이 뛰어난 제자가 있
었지만, 이 공부는 근본부터 가르쳐야
자칫 신통이 도인 줄 알고 잘못 이해하
고 머무르게 될까봐, 혹여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나 뛰어넘는다고나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
셨습니다.
그러니 금할 때는 그런 일이 생겨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도 주인공
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인
공이라는 불성 속에서는 천차만별로 화
해서 나투게 됩니다. 신장도 돼주고 해결
사도 돼주고 관세음보살도 돼주고 지장
도 돼주고 문수도 돼주고 보현도 돼주고
이렇게 수없이 나투어 내가 돼 줍니다.

그게 바로 율동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을 했어도 거짓말이 아니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커
짓말을 해라 이럴 수도 없는 문제가 생
기죠. 거짓말을 해도 아니되고 안해도
아니되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가 알아서 율
동성있게 지혜롭게 해나간다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율동성있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한마음이 저가
까지 미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한마음이
참나에 들고 나면서 남의 손을 빌리게
해주는구나. 내 주인공의 손을, 주인공이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게 해주었으니 또 감사
하구나.’ 그렇게 놓고 가면 되죠.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한창
산으로 돌아다닐 때 물풀이 많이 아니
빨지산으로 오해를 받고 불렀어요. 그
때 형사들이 한 다섯 사람쯤 왔어요. 죄
도 없고 인을 닮고 닮고 방에 갇혀 있
니 보통 갑갑한 일이 아닙니까. 그때 문
득 생각이 ‘인제 나가자’ 이거예요. ‘내
자부처가 나가자, 저 문고리 좀 들어
봐’ 이예요. 그 문고리를 잡아당겼더니
그 문실주 끼워놓은 것이 그냥 썩 빠져
요. 형사들은 다 책상에 앉드려 자고 있
고요. 그게 무슨 원리냐 하면 내 주인공
의 원자 속이 인자를 내보내서 탄 사
람을 데려오게 해서 문을 따주게 만들었
거든요.
그 상대방도 바로 나다 이 소립니다.
마침 책상에 건방도 있고 물도 있길래
물 한 잔 마시고 속 닦고는 건방도 주섬
주섬 손수건에 좀 싸들고 나왔죠. 나오면
서 썩 웃고 나왔어요. 왜냐? 나를 고문한
것이 이 주인공에서 저 사람을 시켜서
한 것이니 미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나에게 하는 것도 뭐고 하는 것도 모두
가 내 놀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맞은 상처는 아프지도
않고 금방 나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 할 일을 남한테 떠
넘기지 마세요.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남한테 물싹 맞았다 하더라도 ‘어허, 저 사
람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게
했으니 내 얼마나 저 사람 수고를 하게
했다.’ 하고 생각을 돌려주세요. 수고를
시켰으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면
몸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게 돼버리죠.
죽은 게 생상으로 연결이 돼서 다 알게 되
고 배우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짧았던 한 순간의 일입니
다. 일초 전이라 할지라도 연방 과거로
돌아가니 붙잡을 것이 없고 미래도 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참나찰
나 화해서 공한 것을 아시고, 또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라는 뜻을 아셔서 열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 내 손으로 할 일이면 내 쪽으로 합해
서 하나가 되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할 일
이라면 그 쪽으로 가서 하나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을 가든 약
국을 가든 그것도 자기가 있으니까 가
는 것이고, 자기 주인공을 믿으니까 가
는 거죠. 아픈 것도 자기가 있으니 아픈 거
고요. 그러나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을 믿
는다면 그 의사나 약도 내 주인공의 보
이지 않는 손인 줄 알게 되니 그것도 법
이네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자재권
입니다.
그리고 오계를 받을 때 술먹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것도 말입니다. 나는 무조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왜하면 아

합 찬 이달호 · 이태영 · 이상기 · 이원기 · 이용기
인천시 동구 민석동 6번지